

# 고려 江都時期 도성 성곽의 축조와 그 성격

申安湜\*

1. 머리말
2. 성곽의 축조
3. 성곽의 성격
4. 맺음말

## 1. 머리말

1232년(고종 19) 최우정권에 의해 단행된 강화천도는 30여 년간 대몽전쟁의 상징이었다. 이는 1차 대몽전쟁에서의 패배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수도 개경과의 근접성 및 지방과의 연결 혹은 漕運의 편리성이라는 측면, 1차 대몽전쟁에서 草賊과 같은 저항세력이 중앙 정부와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무인정권에 저항하는 분위기라는 정치적 측면 등이 고려되었다.<sup>1)</sup>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왕이 수도를 떠나 피한 경우는 어느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1) 尹龍燾,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 申安湜, 『高麗 武人政權과 地方社會』, 景仁文化社, 2002 ; 박종진, 「강화천도 시기 고려국가의 지방지배」, 『한국중세사연구』 13, 2002.

시기에나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대외적인 침략을 당하면서 수도를 옮긴 경우는 최우정권의 강화천도가 유일하였다. 강화천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전술상으로도 단기전을 획책한 몽골의 파상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유리한 면도 있었지만, 본토에 대한 대책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권유지 차원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도 江華都城<sup>2)</sup>의 효율성은 30여 년간의 대몽 전쟁과 고려왕조 혹은 무인정권 유지 등의 측면에서 보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江都가 새로운 수도로서의 위상과 전쟁의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조건은 방어력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강화도는 봉천산(291m) — 고려산(436m) — 혈구산(466m) — 진강산(443m) 등이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사방이 습지여서 배를 정박할 곳이 단 몇 군데밖에 없었다고 한다. 섬의 동쪽 지역으로 甲串 주변은 강폭이 좁고 물살이 급해 水軍을 쓰기 어려워 적이 침범하기 어렵고, 그 위쪽의 月串 주변은 배를 정박하기 편리하여 적이 침범하기 쉬우므로 수군으로 방어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섬의 서쪽 지역은 서해에 접해 있어 육지와와의 연락이 어려울 뿐더러 위기에 빠질 경우 탈출로가 바다밖에 없었다. 강도의 읍치가 있었던 현재의 강화읍 지역은 북쪽의 昇天浦와 동쪽의 갑곶을 통해 육지와 연락이 가능하여 옛 수도 개경 일대를 관장할 수 있었고, 갑곶 연안에 대한 방어를 지휘하기가 용이하였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강화천도 초창기부터 옛 수도 개경의 전례에 따라 공공시설과 방어 성곽 등을 건설하였다.

이 글에서는 『고려사』 기록에 나타나는 강도의 內城·中城·外城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곽 축조<sup>3)</sup>와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이는 현재까지의

2) 1232년(고종 19)에 강화천도가 단행됨으로써 수도 개경은 '舊京' 혹은 '舊都'로 불리기 시작했고, 강화도는 '郡'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江都'로 명명되었다. 江都는 '江華都城'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강도 성곽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 李丙燾,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 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 윤용혁,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 윤용혁,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정비』, 『역사와 역사교육』7, 2002 ; 김창현, 「〈제2장〉 강화의 왕도(王都) 경영」, 『新編 江華史』

강도 성곽에 대한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옛 수도 개경의 성곽체제와 비교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성곽의 축조

고려왕조의 성곽 축조형태는 수도 개경과 지방의 성곽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개경의 성곽은 宮城·皇城·羅城의 3성 체제로 이루어진 반면, 지방에서는 단일 성곽 혹은 重城과 外城의 2중 성곽체제를 이루기도 하였다.<sup>5)</sup> 특히 개경의 성곽은 도시의 골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왕조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였다. 이런 점은 西京의 궁성·황성·나성 건설에도 반영되었다.

강도는 대몽전쟁기의 임시 수도라는 한정된 의미도 있었지만, 개경이 이미 '舊都'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체되는 도성 체제를 갖추어야만 했다. 국가의 중심 도성은 궁궐뿐만 아니라 국가운영의 중요 시설 등이 있는 곳이다. 특히 국왕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시설물들은 신변 혹은 시설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위치와 방호 시설적인 측면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고려사』 등의 기록에 의하면 강도에는 내성·중성·외성 등의 성곽이 축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상), 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2003 ; 김창현,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韓國史研究』127, 2004 ; 윤용혁,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연구」, 『國史館論叢』106, 2005.

4) 내성·중성·외성의 위치 비정은 기존의 연구결과 이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하였고, 지도 자료로 참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 『江華 옛 地圖』, 2003 ; 朝鮮總督府, 『近世韓國地形圖 - 大正五年測圖同六年製版(江華·通津·金浦)』, 1918 ;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 인천광역시·(재)불교중앙교원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文化遺蹟分布地圖 - 仁川廣域市 江華郡』, 2003. 참고로 필자가 생각하는 강도 성곽의 형태와(그림 1·2) 강화군·육군박물관의 성과로 제시된 성곽 형태를(그림 3·4·5) 부기하였다.

5) 필자는 그동안 고려시대의 성곽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그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申安湜, 「高麗時代 開京의 羅城」, 『明知史論』11·12, 2000 ;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38, 2000 ;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89, 2004 ; 신안식,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軍史』6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 가-① (高宗)二十年 築江華外城(『고려사』 권82, 지35 병2, 城堡條)  
 ② 是歲 築江華外城(『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4년)  
 ③ (高宗)三十七年 始築江都中城 周回二千九百六十餘間 大小門凡十七  
 (『고려사』 권82, 지35 병2, 城堡條)  
 ④ □中城以屏皇都(『崔沆墓誌銘』)  
 ⑤ 始壞江都內城 客使督役甚急 諸領府兵不堪其苦泣曰 若知如此 不如不城  
 (『고려사』 권24, 세가23 고종3, 고종 46년 6월 癸未)  
 ⑥ 客使聞外城不壞曰 外城猶在 可謂誠服乎 盡壞乃還 國家賂以重寶 卽令  
 都房壞外城 時 都人以謂 內外城盡壞必有以也 爭買船 船價湧貴(『고려  
 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6년 6월 庚寅)  
 ⑦ 在松岳里 距府東十里 高麗高宗時 所築內外城 俱土築 外城周三萬七千  
 七十六尺 內城周三千八百七十四尺(『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江華都  
 護府, 古跡, 古宮城條)

사료 가-①·②·③·④·⑤·⑥·⑦에서는 강도에 내성·중성·외성으로 이루어진 성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이들 성곽의 성격에 대한 기록은 현재로선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강도의 성곽은 중세 도성의 특성상 궁궐 및 시가지 등을 보호하는 시설이었음은 추정 가능하다. 사료 가-①·②에서는 외성의 축성 연대가 서로 다르게 표기됨으로써 여러 가지 추정 근거가<sup>6)</sup> 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료 가-③·⑦에서의 성곽 규모를 통해서는 중성과 내성이 서로 다른 용도의 성곽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사료 가-③·④의 중성이 사료 가-⑤·⑥의 성곽 파괴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의문이었다.<sup>7)</sup> 특히 내성은 쌓았다는 기록 없이 사료 가-⑤·⑥에서와 같이 파괴 과정에서만 등장하였는데, 이는 내성을 중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sup>8)</sup>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6) 외성의 건설 시기가 고종 20년과 24년으로 제시됨으로써 성곽 축조의 시작과 增築이라는 견해(김상기, 앞의 책, 1948, 128쪽 : 김창현, 앞의 논문, 2004, 153쪽) 혹은 24년의 외성 축조 기록은 완공의 의미보다는 집중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견해(윤용혁, 앞의 논문, 2005, 212쪽)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7) 주 3) 참조.

8) 김창현은 내성이 중성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2004, 157쪽).

따라서 강도의 성곽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곽들의 성격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와 더불어 그 위치와 형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까지 찾아볼 수 있는 강도의 내성·중성·외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강도의 성곽<sup>9)</sup>

성곽	규 모	비 고
내성	(高宗 四十六年 六月 癸未) 始墾江都內城	高麗史
	3,874尺(1尺=35.510cm, 약 1.4km) 土築, 內城周三千八百七十四尺	新增東國輿地勝覽
	3,874척 土築, 內城周回三千八百七十四尺 尙有體城周遭及城門遺址 長嶺之城門峴 仙源之大門峴 仁政之西門洞 不改舊號 至今稱之	輿地圖書
	3,874척 土築, 周三千八百七十四尺 高麗高宗壬辰土築 今無基址	江都志
	土築	江華府誌
	高宗二十年 築內城 今基址未詳	大東地志
중성	2,960間(1間=1.818m, 약 5.4km) (高宗 三十七年 八月 庚申) 築江都中城(세가) 周回二千九百六十餘間 大小門凡十七(병지)	高麗史
	高麗高宗乙巳 土築 古基在今大門峴乃長嶺	江都志
	(高宗)三十七年 始築中城 門凡十七	大東地志
	8.1km	강화군·육군박물관
외성	高宗二十年 築江華外城(병지) (高宗二十四年) 是歲 築江華外城(세가)	高麗史
	37,076척(약 13km) 土築, 外城周三萬七千七十六尺	新增東國輿地勝覽
	37,076척 土築, 外城周回三萬七千七十六尺	輿地圖書
	37,076척 此卽浦邊長堤 俗所謂萬里長城 周三萬七千七十六尺 高麗高宗 癸巳(高宗二十年)土築 丁酉(高宗二十四年)又築	江都志
	16,066척(약 5.7km) 內外城皆土築 外城周一萬六千六十六尺	江華府誌
	(高宗)二十四年 土築外城 今府南有古址	大東地志
23,225m	강화군·육군박물관	

\* 朴興秀, 「도량형제도」, 『한국사』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599~615쪽 참고하여, 고려의 도량형을 고려의 箕田尺을 기준으로 할 때 1間=1.818m, 1步=6尺, 1尺=35.510cm로 계산

9) 이 도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4년 : 『고려사』 권82, 지35 병2 城堡, 고종 37년 :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6년 6월 癸未 :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 江華都護府, 古跡, 古宮城條 : 『輿地圖書』 江都府誌, 江華, 古跡, 古宮城條 : 李衡祥, 『瓶窩全書 江都志』, 古跡條 : 金魯鎮 『江華府誌』 卷下, 古跡, 高麗城址條 : 金正浩, 『大東地志』, 江華府, 城址條 :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표 1〉에서 보면<sup>10)</sup> 내성과 외성이 모두 ‘흙으로 쌓은 성곽[土築]’이었음을 알 수 있고, 중성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개경의 황성과 나성이 토축이었음을 고려하면, 강도의 도성 또한 이를 계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도는 대몽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생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강도의 모든 성곽이 토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전투를 염두에 둔 북방 양계지역과 기타 지방의 성곽에서 石城 혹은 석성과 土城 혼합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례에서<sup>11)</sup>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강도지』에서는 내성 3,874척, 외성 37,076척이라는<sup>12)</sup> 규모가 표기되어 있고, 중성 2,960간의 규모는 『고려사』에서만 표기되어 있다. 또한 강화군과 육군박물관에서는 지표 조사를 통해서 외성 23,225m와 중성 8.1km라는 규모를 제시하였다.<sup>13)</sup> 중성의 경우 현재의 江華山城 윤곽으로 추정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조선시대에 쌓은 성곽 윤곽으로 『고려사』에서 제시된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외성의 경우는 ‘도성을 에워싼 성곽[環築]’이 아니라 강화도 동쪽의 해안 방어선으로 본 결과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또한 〈표 1〉의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제시된 규모와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외성이 강화도 동쪽의 해안 방어선이었다면, 서·북·남쪽 해안 방어선의 존재 유무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도 내성과 외성의 경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강도지』, 『강화부지』, 『대동지지』 등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강도 중성의 경우에는 『고려사』, 『강도지』, 『대동지지』에서는 존재가 확인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강화부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0) 〈표 1〉에서 제시된 문헌기록에 대한 분석은 김창현의 글(「〈제2장〉 강화의 왕도(王都) 경영」, 『新編 江華史(상)』, 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2003, 200~203쪽)을 참고할 수 있다.

11)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89, 2004 : 신안식,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軍史』6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12) 〈표 1〉을 보면 『강화부지』에서의 외성 규모가 16,066척으로 표기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강도지』의 규모와 비교되는데, 이는 『고려사』의 중성 2,960간을 고려한 것인지 그 연유를 잘 알 수가 없다.

13) 강화군·육군박물관, 앞의 책, 2000, 23~28쪽·56~58쪽. 부기된 〈그림 4·5〉를 참조하기 바란다.

『강화부지』에서 중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그 규모적인 면에서 중성과 외성을 동일하게 간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경우도 『강화부지』와 같은 의도였는지는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 『대동지지』에서는 내성의 축성 시기를 1233년(고종 20), 외성의 축성 시기를 1237년(고종 24)으로 각각 표기하였는데, 외성의 축성 시기를 『고려사』에서 고종 20년(병지)과 24년(세가)으로 각각 표기한 것과 차이가 난다. 이는 아마도 『고려사』에서의 외성 축성시기에 대한 혼란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성곽의 위치에 대한 표기도 확인할 수 있다. 『여지도서』에서는 “내·외성 모두 土築으로 외성은 둘레가 37,076척이고 내성은 둘레가 3,874척이다. 성체의 둘레와 성문의 자리 흔적이 남아있다. 장령의 성문현, 선원의 대문현, 인정의 서문동은 옛 칭호를 고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부르고 있다”<sup>14)</sup>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장령의 성문현, 선원의 대문현, 인정의 서문동’이라는 지명이 내성과 외성 중에 어떤 것의 위치를 지칭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sup>15)</sup> 이보다 후대의 기록인 『강도지』에서는 내성에 대해 “지금은 기지가 남아있지 않다[今無基址]”라고 하였고, 외성에 대해서는 “이는, 즉 해변의 긴 제방이고 속칭 만리장성이라고도 한다[此卽浦邊長堤 俗所謂萬里長城]”라고 하여 해안 방어선으로 보았다. 『대동지지』에서는 내성에 대해 “지금은 기지가 상세하지 않다[今基址未詳]”라고 한 반면, 외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부[강화부] 남쪽에 옛날 터가 남아있다[今府南有古址]”라고 하여 도성을 둘러싼 성곽으로[環築] 이해하고<sup>16)</sup> 있다.

14) 『輿地圖書』, 江都府誌, 江華, 古跡, 古宮城條 “內外城皆土築 外城周回三萬七千七十六尺 內城周回三千八百七十四尺 尙有體城周遭及城門遺址 長嶺之城門峴 仙源之大門峴 仁政之西門洞 不改舊號 至今稱之”.

15) 이 기록에 대해 이병도는 중성과 외성의 한 지명으로 보았고(앞의 책, 1980, 285~286쪽), 김상기는 외성으로 보았다(앞의 책, 1948, 195~196쪽). 김창현도 이들 지명을 외성의 한 지명으로 판단했지만 ‘인정의 서문동’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앞의 글, 2003, 203쪽).

16) 이 기록에 대해 김창현은 “외성의 흔적을 갑곶강이 아니라 선원의 대문현에서 찾은 것인데, 다만 이 외성을 중성과 다른 것으로 파악한 점이 문제이다”라고 하여, 중성을 외성으로 잘못 표기했음을 지적하였다(앞의 글, 2003, 203쪽).

이상과 같은 기록들의 내용에서 보면 여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구자들도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강도의 도성 성곽체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성곽들의 위상과 성격부터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 3. 성곽의 성격

강화도는 강화천도를 전후해서 주목된 섬이 아니라 1018년(현종 9)에 현령이 과건되고 鎭江縣·河陰縣·喬桐縣 등의 속현을 두었을<sup>17)</sup> 뿐만 아니라 保勝·精勇·一品軍 등의 주현군이<sup>18)</sup> 설치된 곳이었다. 특히 최씨정권이 성립된 이후 국왕 및 왕실의 유배지로도 이용되었다.<sup>19)</sup> 이런 점들은 강화도에 일찍부터 관아와 민간 시설 및 군사적인 방어 시설 등이 갖추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다.<sup>20)</sup> 또한 강화천도가 급박하게 이루어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성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 개경 인접 지역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역사성과 기존의 기반 시설 등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宮 城

강도의 시설이 개경의 것과 유사했다는<sup>21)</sup> 기록을 통해서는 도성 성곽 또

17)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楊廣道, 江華縣條.

18) 『고려사』 권83, 지37 병3, 州縣軍, 京畿條 “江華道內 保勝一百九十九人 精勇五十四人 一品一百七十一人.”

19) 『고려사』 권21, 세가21, 희종 6년 12월 “是月 召明宗太子璿于江華” : 『고려사』 권21, 세가21, 희종 7년 12월 癸卯 “忠獻廢王 遷于江華縣 尋遷紫燕島” :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1, 고종 12년 3월 “賜林長卿等三十人明經三人恩賜七人及第 王在江華也 縣人韋元 有甘盤之舊 至是中第 王召入內庭 假屬內侍 賜衣帶金銀 鞍馬酒果.”

20) 이에 관련된 연구는 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新編 江華史(상)』(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1년 2월 癸未 “燃燈王如奉恩寺 以故叅政車偶家爲奉恩寺 撤民家以廣輦路 時雖遷都草創 然凡毯庭宮殿寺社號皆擬松都 八關燃燈行香道場一依舊式.”

한 개경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주지하듯이 개경의 성곽은 궁성·황성·나성의 3성 체제로<sup>22)</sup>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도의 도성 성곽 또한 3성 체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록상으로 강도 궁성의 축조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昇平門’과 ‘闕東門’ 등의 성문만<sup>23)</sup> 확인될 뿐이다. 지금까지 강도의 궁성으로 주목받은 것이 내성이다. 강도의 내성은 『고려사』에서 언제 축성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없이 고종 46년에 파괴되었다는(사료 가-⑥) 기록이 처음 나타나지만,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강도지』에서는 3,874척이라는 규모가 제시되고(〈표 1〉)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22) 개경의 성곽체제는 다음 표와 같다.

성곽	규 모	비 고
宮城	둘레 2.17km, 동서 373m, 남북 725m, 마름모, 넓이 25만m <sup>2</sup> (약 75,000평)	전룡철(북한학자)의 발굴보고서
皇城	2,600間(1間=1.818m, 약 4.7km)	고려사 지리지
	둘레 4.7km, 동서 1,125m, 남북 1,150m, 사각형, 넓이 125만m <sup>2</sup> (약 378,000평)	전룡철
羅城	둘레 10,660步(1步=6尺, 1尺=35.510cm, 약 22.7km), 높이 27척(약 9.5m), 두께 12척(약 4.2m)	고려사 지리지
	둘레 10,660보, 높이 27척, 낭옥 4,910간(약 8,900m)	고려사절요
	둘레 60里(1里=1,296尺, 약 27.6km)	고려도경
	둘레 16,060보(약 34.2km), 높이 27척	세종실록 지리지
	둘레 23km, 동서 5,200m, 남북 6,000m, 넓이 2,470만m <sup>2</sup> (약 7,471,000평)	전룡철

\* 朴興秀, 「도량형제도」,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599~615쪽 참고하여, 고려의 도량형을 고구려의 箕田尺을 기준으로 할 때 1間=1.818m, 1步=6尺, 1尺=35.510cm로 계산

23)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30년 12월 “崔怡 於西山 私伐水藏之 發民輸水 民甚苦之 又移安養山柏樹植家園 安養山去江都數日程 使門客將軍朴承賁等督之 時方沍寒 役徒有凍死者 沿路郡縣棄家登山 以避其擾 有人勝昇平門云 人與柏孰重” :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중1, 원종 원년 3월 丁亥 “忽必烈大王卽皇帝位詔還西京屯兵 王與東里大同舟渡海 自承平門入闕命宰臣告于景靈殿” : 『고려사』 권54, 지8 오행2, 金, 원종 6년 7월 壬戌 “虎入闕東門 外咬殺人”. 후자의 ‘承平門’은 ‘昇平門’의 오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① 이병도

“都城은 內城·中城·外城의 3重城으로 되어, 內城은(所築 年代 未詳하나 新宮 經營과 同時에 된 듯함) 지금 松岳山·新門里·南山里를 통하여 圍繞한 朝鮮時代의 內城의 주위와 일치하였던 것 같다. … 요컨대 나는 朝鮮時代의 內城을 高麗時代의 中心 都城으로 보는 동시에 朝鮮時代의 行宮 基址를 高麗 高宗時의 新宮으로 인정하며, 亭子山 부근의 遺墟는 離宮 혹은 기타 건축물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sup>24)</sup>

## ② 김상기

“舊 南門이 지금 鐘閣과 仙源殉節碑閣의 地點에 있다는 것이니 이로써 元 城郭의 範圍를 推測할 수 있거니와 이 舊 南門이 本來 府城의 것이라면 此種의 城郭으로서는 너무나 狹隘한 感이 있는 바이다. 생각하건대 이것이야말로 江都內城에 該當한 것이 아닌가 하나니 元來 江華遷都는 倉卒間에 行해진 만큼 內城은 다만 宮闕防衛의 目的으로 宮牆과 같이 草草히 쌓았던 것인데 朝鮮朝에 들어서도 그것을 府治의 內城과 같이 얼마 동안 利用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sup>25)</sup>

## ③ 윤용혁

“필자는 강도에 대한 논문에서 내성이 ‘궁성’의 성격이었다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왕궁만의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구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관서와 시설이 위치한 중심구역의 의미를 상징한 것이었다. 개경에서 말하는 궁성과 황성의 통합개념으로 보면 좋겠다. 요는 강도의 내성이 궁성과 황성을 구분하지 않은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 외성, 중성과는 달리 강도 내성의 구축에 대하여 『고려사』에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것도 내성이 갖는 궁성적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sup>26)</sup>

이와 같은 강도 내성에 대한 연구 성과의 쟁점은 이병도(①)의 강도 중심 도성으로 보는 견해 및 김상기(②)와 윤용혁(③)의 궁성적 성격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되고, 윤용혁은 덧붙여 내성을 궁성과 황성의 통합개념으로

24) 李丙燾, 앞의 책, 1980, 285~286쪽.

25) 金庠基, 앞의 책, 1948, 128쪽.

26) 윤용혁,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정비」, 『역사와 역사교육』7, 2002, 18~30쪽 ; 윤용혁, 「고려 강화도성의 성과 연구」, 『國史館論叢』106, 2005, 208~209쪽.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김창현은 내성을 중성으로 판단하고,<sup>27)</sup> 오히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성 3,874척이 강도 本闕의 궁성이었다고<sup>28)</sup> 하였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궁성을 내성이라고 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고려도경』에서는 개경의 황성을 낮추어서 내성이라고 했고,<sup>29)</sup> 고려 말에 건설된 개경의 내성은<sup>30)</sup> 나성의 넓은 규모에 따른 방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표 1>에서 3,874척(약 1.4km)의 규모적인 면에서 보면 내성을 궁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1259년(고종 46)에 파괴되었다는(사료 가-⑤·⑥)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sup>31)</sup>

궁성의 존재는 궁궐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강화천도가 결정된 이후 강화도에 궁궐 건설을 시작한 것이 고종 19년 6월이었고,<sup>32)</sup> 그해 7월에 고종이 강화 客館에 도착하였다.<sup>33)</sup> 이때는 강화천도 직후였기 때문에 국왕이 머물 수 있는 궁궐이 아직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고, 1234년(고종 21)에 여러 도의 民丁을 징발하여 궁궐과 百司를 영조한<sup>34)</sup>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도 고종이 궁궐 대신 관리의 집에 기거한<sup>35)</sup> 것으로 되어 있다. 고종 21년 9·11월, 고종 22년 2월에 道場을 內殿에서 설행한 것으로 보아,<sup>36)</sup> 이를 전후해서 궁궐과 궁성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27) 김창현, 「〈제2장〉 강화의 왕도(王都) 경영」, 『新編 江華史(상)』, 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2003, 199~200쪽 ; 김창현,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韓國史研究』127, 2004, 156쪽.

28) 김창현,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國史館論叢』106, 2005, 235쪽.

29) 『고려도경』 권5, 宮殿1, 王府 “王府內城 環列十三門 各揭名額 隨方見義 唯廣化門正東通長衢 殿門十五.”

30) 『고려사』 권113, 열전26, 崔瑩傳.

31) 내성이 궁성이었음을 가정하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주 23)의 자료를 참조하면 원종대까지 궁성의 성문 명칭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32)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19년 6월 丙寅 “瑒發二領軍 始營宮闕于江華.”

33)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19년 7월 丙戌 “入御江華客館.”

34)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1년 1월 癸亥 “徵諸道民丁營宮闕及百司.”

35)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1년 2월 丁亥 “以營宮闕 移御大將軍宋緒家.”

36)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1년 9월 丁酉 “朔 親設消災道場于內殿以禳星變” ;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1년 11월 甲子 “親設消災道場于內殿以禳星變” ;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2년 2월 庚辰 “設止風道場于內殿.”

강도의 궁궐이 건설되는 것과 동시에 왕실관련 시설들도 갖춰졌는데, 奉恩寺와 法王寺 등의 왕실관련 사원이 궁궐 건설을 전후해서 확인되고<sup>37)</sup> 있다. 개경에서의 봉은사는 황성 남쪽에 있었고,<sup>38)</sup> 법왕사는 황성 내에 있던<sup>39)</sup> 사원이다. 이 외에도 賢聖寺·乾聖寺·福靈寺·興國寺·王輪寺·妙通寺·外帝釋院 등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또한 개경 시절에 대부분 황성 밖 혹은 나성 내에 위치했던<sup>40)</sup> 사원들이다. 그리고 “궁궐 남쪽 마을에서 수천 호가 불났다”,<sup>41)</sup> “시가 남쪽 마을 수백 호에 불이 났다”,<sup>42)</sup> “강도 견자산 북쪽 마을에서 민가 800여 호에 불이 나서 노약자 80여 명이 타 죽고, 연경궁·법왕사·어장고·대상부·수양도감이 연소되었다”,<sup>43)</sup> “시가지 북쪽에서 40여 호에 불이 났다”,<sup>44)</sup> “良醞洞 민가 100여 호에 불이 났다”<sup>45)</sup> 등의 화재 기록에서도 많은 국가 시설과 민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강화천도가 대몽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되었을 것이고, 이들 시설을 외적 혹은 여러 변고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외성 축조는 시급한 현안이었을 것이다. 개경에서도 초기단계에 궁성과 황성이 있었지만, 정작 외성인 나성은 거란과의 3차

37)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1년 2월 癸未 “燃燈王如奉恩寺 以故叅政車偶家爲奉恩寺 撤民家以廣輦路 時雖遷都草創 然凡毬庭宮殿寺社號皆擬松都 八關燃燈行香道場一依舊式” :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2년 11월 癸酉 “設八關會 幸法王寺.”

38)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2년 “創大奉恩寺于城南.”

39) 『고려도경』 권17, 祠宇, 王城內外諸寺條 “王府之東北 與春宮相距不遠 有二寺 一曰法王次曰印經 由大和北門入 則有龜山 玉輪二寺.”

4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開城府下, 古跡, 賢聖寺條 “古基在炭峴門內”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開城府上, 佛宇, 乾聖寺條 “在松岳山”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開城府上, 佛宇, 福靈寺條 “在松岳西麓” : 『고려도경』 권17, 祠宇, 興國寺條 “在廣化門之東南道旁”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開城府上, 佛宇, 王輪寺條 “在松岳山麓” : 『송경광고』 권8, 佛宇1, 妙通寺條 “按蜈蚣山西 有妙通洞 疑卽其古址” : 『송경광고』 권8, 佛宇2, 外帝釋院條 “今松岳東麓 有帝釋井 卽外院舊址也.”

41)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火, 고종 21년 1월 丙午 “大風 闕南里數千家火” :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火, 고종 21년 3월 癸丑 “大風 闕南里失火 延燒數千餘家.”

42)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火, 고종 23년 3월 庚申 “市街南里數百家火.”

43)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火, 고종 32년 3월 甲子 “江都見子山北里民家八百餘戶火 老弱焚死者八十餘人 連燒延慶宮·法王寺·御醬庫·大常府輸養都監.”

44)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火, 고종 36년 2월 丁亥 “街衢北四十餘戶火.”

45)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火, 고종 37년 5월 癸未 “良醞洞民家百餘戶火.”

레 전쟁을 치른 이후 1029년(현종 20)에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다.<sup>46)</sup> 서경에서도 938년(태조 21)에 나성, 947년(정종 2)에 왕성, 1011년(현종 2)에 황성이 각각 축조되었다.<sup>47)</sup>

따라서 강도의 성곽 축조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강도시기 초기에는 궁성과 외성으로 운영되다가 1250년(고종 37년)에 중성이 축조됨으로써(사료 가-③·④) 도성으로서의 3성 체제가 완비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48)</sup>

## (2) 中 城

강도의 중성은 1250년(고종 37) 최항집권기에 축성되었는데, 둘레가 2,960여 간이고 대·소문이 17개라고 하였다.<sup>49)</sup> 그런데 1259년(고종 46) 몽골 사신이 강도의 성곽 파괴를 요구했을 때 중성과 관계된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④ 이병도

“中城은 지금 仙源面 大門洞의 大門峴을 南止(南門)로 하여 同面 仙杏里·倉里·神井里·智山里 및 府內面 菊花里·玉林里 일대를 逶迤 延亘한 土城 유적이 그것에 해당한다.”<sup>50)</sup>

### ⑤ 김상기

“江都의 中城은 位置로나 地勢로 보아 現在 邑城이 곧 그것을 利用하여 修築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sup>51)</sup>

46)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2, 현종 20년 8월 “是月 開京羅城成 凡二十一年而功畢.”

47)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태조 21년 “築西京羅城” :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定宗 2년 “又築西京王城” :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현종 2년 “築西京皇城.”

48) 부기된 <그림 1·2>를 참고하기 바란다.

49) 『고려사』 권82, 지35 병2, 城堡, 고종 37년 “始築江都中城 周二千九百六十餘間 大小門 凡十七.”

50) 李丙燾, 앞의 책, 1980, 285쪽.

51) 金庠基, 앞의 책, 1948, 196쪽.

## ⑥ 김창현

“중성은 최항이 중성을 쌓아 ‘병황도(屏皇都)’했다는 기록에 나타나듯이 최항이 건설을 주도하였다. ‘병황도’는 황도를 병풍처럼 가린다는 뜻이니 중성은 강화 황도 즉 강도를 둘러싼 도성이었음이 드러난다. … 강도의 내성은 중성과 그 안의 성을 가리켰을 가능성과 중성만을 가리켰을 가능성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지만 후자로 여겨진다. … ‘중’과 ‘내’는 혼용해 쓰이기도 하는 용어이므로 중성과 내성을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52)</sup>

“고려 강도 중성의 길이는 대략 11.8km가 되는데, 여지승람의 외성 37,076척(11,864m)과 거의 일치하니 여지승람의 외성 37,076척은 강도시절 중성에 해당됨이 증명된다. … 강도의 중성은 외성과 겹치는 부분까지 포함해 도성으로 기능하였다고 생각되니, 이 경우 강도 도성의 둘레는 대략 16~17km 정도가 되므로 평양성과 비슷하고 한양성보다 약간 작은 규모라 할 수 있다.”<sup>53)</sup>

## ⑦ 윤용혁

“강도 중성의 범위에 대하여 대문현 고개의 토축을 중성의 남측 경계로 보고, 강화읍 서북의 외성에서 강화읍 쪽으로 축성하여 중성을 구성하였으리라는 것은 대략 이해될 만하다. … 강도의 내·외성을 확정하면, 비교적 고려의 원래 城跡이 잘 나타나 있는 대문현 중심의 토성이 최항시대 고종 37년의 ‘강도 중성’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sup>54)</sup>

이와 같은 강도 중성에 대한 연구 성과의 쟁점은 조선시대 江華邑城과의 관계 및 강화 도성으로서의 위상 문제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선 이병도(④)와 윤용혁(⑦)은 중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상기(⑤)는 조선시대 읍성의 모태가 강도의 중성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김창현(⑥)은 중성을 내성 혹은 외성으로 보기도 하여 명칭상으로 혼동을 주

52) 김창현, 「〈제2장〉 강화의 왕도(王都) 경영」, 『新編 江華史(상)』, 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2003, 199~200쪽.

53) 김창현,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韓國史研究』127, 2004, 156쪽.

54) 윤용혁,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연구」, 『國史館論叢』106, 2005, 220쪽.

지만 앞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성 3,874척이 강도 본궐의 궁성이었다고<sup>55)</sup> 하여 기록자의 착오였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김창현(6)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성을 외성으로도 보고, 이 성곽이 강도 도성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56)</sup> 하지만 중성을 도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전시 수도 초창기에 궁성 및 시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도성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sup>57)</sup>

강도에 궁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성곽체제가 있었는데 1250년(고종 37)에 굳이 중성을 축조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중성이 축조된 '고종 37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49년(고종 36) 최우가 죽고 그 아들 최항이 새로운 집정자가 되었다.<sup>58)</sup> 이 시기는 1238~1239년(고종 25~26)에 몽골의 3차 침략이 있던 이후 긴 휴식기를 지나 1247~1248년(고종 34~35) 몽골과의 4차 전쟁 직후였다.<sup>59)</sup> 최항은 몽골의 정치적 변동기에 집권하여(1249~1257, 고종 36~44) 아버지 최우의 정책을 그대로 추구할 수 있었다. 정권 초기에는 대몽전쟁도 소강 상태였고, 민의 저항 또한 기록상으로는 침체기였다. 하지만 최항집권기인 1253~1254년(고종 40~41)과 1254~1259년(고종 41~46)에는 몽골의 대대적인 5·6차 침략이 있었다. 이런 점은 새로운 집정자 최항에게 몽골과의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권력 강화라는 현안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을 것이고, 그 상징적인 사업이 중성 건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5) 김창현,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國史館論叢』106, 2005, 235쪽.

56) 윤용혁도 중성을 주거 공간을 포함하는 도성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정비」, 『역사와 역사교육』7, 2002, 18~30쪽). 윤용혁과 김창현이 중성을 도성으로 보고자 한 것은 강화천도 초창기에 쌓은 외성이 강화도 동쪽 해안선을 방비하기 위한 성곽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57) 도성은 수도의 방어시설일 뿐만 아니라 이를 상징하는 용어였다. 도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나성과 외성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였으며, 중성이라고 명명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고려 말에 축조된 내성 또한 나성 방어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를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58)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36년 11월 壬申 “崔怡死 以崔沆爲樞密院副使吏部尙書御史大夫.”

59) 대몽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尹龍燾의 책(『高麗對蒙抗爭史研究』, 1991, 40~4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강도 중성과 같이 기존의 성곽체제에 새로운 성곽을 축조한 사례는 고려 말 수도 개경의 내성 축조가 있었다. 개경의 내성 축조는 무장 崔瑩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최영은 개경의 나성이 너무 넓어서 비록 10만의 병사가 있더라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하여 그보다 작은 내성을 쌓아 변고에 대비하자고 하였다.<sup>60)</sup> 따라서 개경의 내성은 기존의 황성과 나성의 기능을 보완한 군사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다. 개경 내성의 축조는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391년(공양왕 3)에 가서야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어 1393년(조선 태조 2)에 완성되었고, 성곽의 둘레는 20리 40보(약 11.2km)였다.<sup>61)</sup> 그 둘레가 약 11.2km라는 것은 개경의 나성이 약 23km였던 점을 고려하면 1/2 정도 규모의 성곽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개경 내성의 사례처럼 강도 중성의 축조는 기존의 궁성과 외성을 보완하고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곽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1249년(고종 36) 11월에 최우를 계승한 최항이 새로운 집정자가 되어 그 이듬해 8월에 강도 중성이 완성되었다면(사료 가③·④), 2,960여 간(약 5.4km)의 축성 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린 셈이다. 이는 개경의 내성 약 11.2km의 축성 기간이 2년 정도 걸렸다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개경의 내성이 나성의 1/2 규모였던 것은 강화 중성 약 5.4km가 강화 외성 약 13km(〈표 1〉)의 1/2 정도가 되는 것과도 비교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중성’과 ‘내성’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강도지』에서 강도 내성의 규모를 3,874척(약 1.4km)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이 궁성과 기타 시설물들을 둘러싼 것이었다면 지나치게 협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이들 기록에서 제시한 내성의 규모가 궁성의 것이었다면<sup>62)</sup> 궁성과 외성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곽으로서 중성이 축조될 수 있었고, 이것이 내성이 아니었을까 한다. 즉, 고종 46년에 몽골의 요구에 따라 파괴된 내성이 곧 중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60) 『고려사』 권113, 열전26, 崔瑩傳.

6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開城府上, 城郭, 內城條.

62) 김창현, 앞의 논문, 2005, 235쪽.

- 나① 虎入內城(『고려사』 권54, 지8 오행2, 金, 원종 원년 2월 壬寅)  
 ② 忽必烈大王卽皇帝位詔還西京屯兵 王與東里大同舟渡海 自承平門入關  
 命宰臣告于景靈殿(『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1, 원종 원년 3월 丁亥)  
 ③ 虎入關東門外咬殺人(『고려사』 권54, 지8 오행2, 金, 원종 6년 7월 壬戌)

사료 나①·②·③은 고종 46년 내성과 외성이 파괴된 이후에 발견되는 자료들이다. 사료 나②에서의 ‘承平門’과<sup>63)</sup> 사료 나③에서의 ‘關東門’은 궁성의 성문으로서 이 시기까지 궁성이 남아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사료 나①에서의 내성은 기록상으로는 이미 고종 46년 6월에 파괴되었는데(사료 가⑤), 이 시기에 거론된 배경이 분명하지가 않다. 이때의 내성이 파괴된 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던가 아니면 궁성을 지칭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몽골의 요구에 따라 강도의 내성을 파괴했다면, 궁성이 남아 있는 이상 이때의 내성은 궁성과 외성 이외의 성곽을 지칭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또한 내성을 중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개경의 황성과 같은 강도 성곽의 존재 유무이다. 개경의 황성은 궁성과 별궁 및 국가 시설 등을 보호했던 성곽이고, 기타 국가 시설과 일반 민가를 보호했던 성곽은 나성이었다. 강도의 도성 성곽체제가 개경을 답습했다면 황성의 존재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경의 황성 명칭도 몇 사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sup>64)</sup> 그 외에는 황성의 성문 명칭에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65)</sup> 강도의 황성은 그 명칭뿐만 아니라, 앞서 사료 가③에서 중성의 성문이 17개였다고 했지만 그 성문 명칭을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강도 황성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밝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sup>66)</sup> 다만 강화 중성 2,960여 間(약 5.4km)의

63) 이 승평문은 개경 궁성의 昇平門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64)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3년 6월 己丑 :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1, 문종 6년 2월 辛巳 :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1, 명종 원년 9월 :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王京開城府條.

65)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38, 2000.

66) 『崔沆墓誌銘』에 “중성을 (쌓아) 황도를 둘러다(□中城以屏皇都)”라는 기록을 통해서 강도를 황도라고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중성(내성)을 황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중성(내성)을 황성으로 속단하기 어렵다.

성문이 17개라는 것과 개경의 황성 2,600間(약 4.7km)의 성문이 20개였다는<sup>67)</sup> 점이 주목된다.

### (3) 外 城

강도의 외성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고종 20년(사료 가-①) 및 24년(사료 가-②)에 축조되었다는 것과 고종 46년에 파괴되었다는(사료 가-⑤) 기록이 있을 뿐이지만, <표 1>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강도지』에서는 37,076척이라는 규모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⑧ 이병도

“外城은 지금 佛恩面 三成里·西門洞·三同峇里·新峴里·德城里 및 東岸 일대를 圍繞한 土壘인 듯하다. (府誌古蹟條 高麗城址註에 『古傳記云 麗高宗之遷都也 內外城皆土築……舊志以長嶺之城門峴〔○內城〕仙源之大門峴〔○中城〕仁政之西門峴〔○外城〕當之』라고 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한 듯하다)”<sup>68)</sup>

#### ⑨ 김상기

“外城은 그 翌年(고종 20)에 始築되고 同 二十四年에 增築한 것으로서 今 南山과 大門峴을 거쳐 東南 일대를 둘러싼 것이다(지금도 土城이 남아 있음).”<sup>69)</sup> 하고, 이에 대한 보충으로 “外城으로 말하면 現在 南山으로부터 大門峴을 거쳐 神智洞 뒷산으로 하여 東南으로 둘러 있는 土城이 곧 그것으로 생각되나니 江華府誌(下) 古蹟條 高麗城址註에 ‘古傳記云 麗高宗之遷都也 內外城皆土築 外城周一萬六千六十六尺 舊志以長嶺之城門峴 仙源之大門峴 仁政之西門峴當之’라 하여 舊志의 記事가 引用되어 있다. 舊志에 보이는 外城의 範圍는 아직 別問題로 하고라도 大門峴을 든 것은 매우 參考가 되는 바이다.”<sup>70)</sup> 하였다.

67) 『高麗史』 권56, 지10 지리1, 王京開城府條.

68) 李丙燾, 앞의 책, 1980, 285~286쪽.

69) 金庠基, 앞의 책, 1948, 128쪽.

70) 金庠基, 앞의 책, 1948, 195~196쪽.

## ⑩ 김창현

“강화 외성은 대략 1233~1237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외성은 ‘연강제안(沿江堤岸)’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강변을 따라 제방을 쌓아 만든 성곽이었다. … 외성은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강화 외성이 시사하듯이 주로 강화와 통진(김포) 사이의 좁은 수로로 방어하기에 취약한 갑곶강의 강화 쪽 강안을 따라 축조되었다고 판단된다.”<sup>71)</sup>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외성 37,076척은 강도시절 중성의 유적인데 실수로 혹은 편의상 고궁성 항에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sup>72)</sup>

## ⑪ 윤용혁

“강도시대의 외성은 둥글게 환축한 성이 아니고 주로 강도의 동해안을 따라 구축하되, 섬의 허리부분에서 꺾어 기왕의 혈구진성으로 이어대는 정도의 선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강도의 고려시대 외성을 전체적으로 둥글게 환축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현재의 조사결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sup>73)</sup>

이와 같이 강도 외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쟁점은 우선 초기 연구자였던 이병도(⑧)와 김상기(⑨)에 의하면 외성이 環築이었다는 반면, 김창현(⑩)과 윤용혁(⑪)에 의하면 강화 동쪽 해안을 따라 건설된 해안 방어선이었다는<sup>74)</sup> 견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세사회의 수도 성곽은 외적 방어라는 군사적인 용도 외에 도성의 상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도 개경에서도 나성이 1029년(현종 20)에 가서야 축조되었고,<sup>75)</sup> 서경에서도 나성이 먼저 축조된 이후 궁성과 황성이 건설된<sup>76)</sup> 경우가 있었다. 특히

71) 김창현, 「〈제2장〉 강화의 왕도(王都) 경영」, 『新編 江華史(상)』, 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2003, 198~199쪽.

72) 김창현,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韓國史研究』127, 2004, 155~157쪽 ; 김창현,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國史館論叢』106, 2005, 235쪽.

73) 윤용혁,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연구」, 『國史館論叢』106, 2005, 216~217쪽.

74) 강도 외성을 동쪽 해안 방어선으로 설정한 형태는 부기한 〈그림 5〉를 참조하기 바란다.

75)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2, 현종 20년 8월 “是月 開京羅城成凡二十一年 而功畢”.

76)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태조 5년 “始築西京在城〔在者方言畎也〕凡六年而畢” ;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태조 21년 “築西京羅城” ;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定宗 2년 “又築西京皇城” ;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현종 2년 “築西京皇城.”

서경에서 나성이 궁성과 황성보다 먼저 축조된 것은 북방민족에 대한 방어력 강화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77)</sup> 1232년(고종 19)에 단행된 강화천도는 대몽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외적 방어라는 긴박한 현안이 있었다.<sup>78)</sup> 따라서 강도의 외성 축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강도 외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문제에서 김상기(㉑)는 고종 20년에 시작하여 고종 24년에 증축했다고 하였고, 김창현(㉒) 또한 고종 20년에 시작하여 고종 24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고려사』에서의 시기 표시는 보통 완성된 시점을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고종 20년과 24년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sup>79)</sup>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고려 말 개경 내성 20리 40보(약 11.2km)의 축성 기간이 2년 정도 걸렸다는 점과 강도의 중성 2,960여 간(약 5.4km)의 축성 기간이 10개월 전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도 외성 37,076척(약 13km)도 고종 19년으로부터 2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sup>80)</sup> 하지만 외성이 축조되는 시기에 궁궐·궁성 및 기타 국가시설 등이 거의 동시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고려사』 병지 고종 20년의 외성 축조 기록은(사료 가-①) 재고할 필요가 있고, 『고려사』 세가 고종 24년의 외성 축조 기록이(사료 가-②)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강도 외성이 環築 혹은 강화도 동해안 방어선이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수도의 외성은 중세 수도 도성의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강도의 외성 또한 개경 나성과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강도 동쪽의 甲串 일대는 수로(鹽河)를 통해 조강과 임진강으로

77)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89, 2004.

78) 비록 고려 후기 자료이지만 수도 외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례가 있다.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신우 3년 “開城府狀曰 其一 外城修葺事則曰 定國立都者 必先高城深池 此古今之通制也.”

79) 외성 축조 시기인 고종 20년과 24년을 조선시대의 이형상은 “高麗高宗 癸巳土築 丁酉又築”(『瓶窩全書 江都志』, 古跡條)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癸巳’와 ‘丁酉’는 각각 고종 20년과 24년이다. 이형상의 이런 시기 표기는 아마도 『고려사』의 고종 20년과 24년 표기를 참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80) 성곽의 규모에 대해서는 <표 1>과 주 22)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 연안에 조선시대와 같은 해안 방어선 혹은 방어 성곽의 구축은 중요했다고 하겠다.<sup>81)</sup> 이런 점은 1235년(고종 22)에 “전후좌우군 진주를 지병마사로 임명하여 해안 연안을 방비하게[沿江防戍] 하고, 광주와 남경은 모두 강화로 들어오게 하였다”라는<sup>82)</sup> 기록과 그해 12월에 “최우는 제주와 더불어 주현의 일품군을 징발하여 강화 연안의 제방을 더 축조하자고[加築江華沿江堤岸] 의논하였다”<sup>83)</sup>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화 연안의 제방을 더 축조하자[加築江華沿江堤岸]’는 표현은 기존의 제방을 보완했다는 의미이며, 그 제방은 해안 방어선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강도 도성의 영역은 개경에서의 5部坊里制와 같이 행정구획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개경은 919년(태조 2)에 수도를 송악 남쪽에 정하면서 開州라 하고 여기에 궁궐과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구분하여 5부로 편제된 이후, 987년(성종 6)과 1024년(현종 15)에 각각 5부방리를 제정비하기도 하였다.<sup>84)</sup> 특히 현종 15년의 5부방리 정비는 현종 20년의 나성 건설에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개경에서의 선형적 경험은 강도 도성 영역의 행정구획 정비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강도 도성은 기존의 촌락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개경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었겠지만, 효율적인 도성 운영을 위해서도 행정구획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정구획의 기준선이 아마도 외성이 아니었을까 한다. 강도의

81) 강도 동쪽 해안은 고려 정부뿐만 아니라 몽골에게도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이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0년 8월 戊申 “習水戰于甲申江”；『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0년 9월 癸巳 “蒙兵十餘騎掠甲申江外”；『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2년 1월 辛丑 “蒙兵二十餘騎到甲申江外”；『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3년 8월 辛巳 “車羅大永寧公洪福源等到甲申江外 大張旗幟牧馬于田 登通津山望江都 退屯守安縣”；『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9월 壬子 “蒙兵三百餘騎來 屯甲申江外”；『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9월 庚午 “蒙兵自窄梁來 屯甲申江外籠絡山野.”

82)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2, 고종 22년 윤7월 壬午 “命前後左右軍陣主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 合入江華.”

83)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2년 12월 “崔瑀與宰樞議 徵州縣一品軍 加築江華沿江堤岸.”

84)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王京開城府條.

외성이 해안 방어선이었다면 도성의 영역이 별도로 지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셋째, 강도의 성곽 파괴 과정에서 내성을 먼저 파괴하고 외성을 나중에 파괴한(사료 가-⑤·⑥) 배경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강도 도성 성곽의 상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사』에서 보면 “(풍사단은) 수도의 성(國城) 동북쪽 靈昌門 밖에 설치하고 입춘 후 축일에 제사 지낸다”라는<sup>85)</sup> 자료에서 국성이 개경 나성이었음을 알 수 있고, 『고려도경』의 國城條에서도 “지금 王城은 압록강의 동남쪽 천여 리에 있으니, 옛 평양이 아니다. 그 성은 주위가 60리이고, 산이 빙 둘러 있으며 모래와 자갈이 섞인 땅인데 그 지형에 따라 성을 쌓았다”라고<sup>86)</sup> 하여 국성인 왕성이 곧 나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개경 도성의 상징이 나성이었듯이, 강도에서도 도성의 상징 국성이 외성이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종 46년에 강도 내성을 처음으로 파괴했을 때 강도의 민심은 노역 때문에 불평한 경우는 있었지만,<sup>87)</sup> 외성까지 파괴되었을 때 배 값이 폭등했던 것과<sup>88)</sup> 비교된다. 따라서 내성을 먼저 파괴한 것은 강도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강도 정부의 고육책이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sup>89)</sup> 하지만 몽골에게는 대몽항쟁의 상징적인 시설은 내성과 외성 모두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85) 『고려사』 권63, 지17 예5, 吉禮小祀, 風師雨師雷神靈星, 風師壇條 “(風師壇) 在國城東北 令昌門外立春後丑日祀之.”

86) 『고려도경』 권3, 國城條 “今王城在鴨綠水之東南千餘里 非平壤之舊矣 其城周圍六十里 山形繚繞 雜以沙磧 隨其地形而築之.”

87) 『고려사』 권24, 세가23 고종3, 고종 46년 6월 癸未 “始壞江都內城 客使督役甚急 諸領府兵不堪其苦泣曰 若知如此 不如不城.”

88)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6년 6월 庚寅 “客使聞外城不壞曰 外城猶在 可謂誠服乎 盡壞乃還 國家賂以重寶 卽令都房壞外城 時 都人以謂 內外城盡壞必有以也 爭買船 船價湧貴.”

89)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성곽은 민심 향배에 중요하였는데, 고려시대 성곽에 대한 인식은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고려사』 권105, 열전18, 洪子藩傳 “(忠烈王) 哈丹之變 王遷江華 或以爲一水險未足恃 中外洶洶 子藩修城飭備 人賴以安” :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우왕 3년 “開城府狀曰 其一 外城修葺事 則曰定國立都者 必先高城深池 此古今之通制也 我國家 太祖創業宏遠 而城郭不修 至於顯廟 始築外城 置城上羅閣 以固守.”

결국 강도의 외성은 그 축조 목적과 상징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개경의 내성과 같은 환축 성곽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90)</sup>

#### 4. 맺 음 말

지금까지 강도시기 도성 성곽의 축조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강도 도성의 성곽체제는 개경의 궁성·황성·나성으로 이루어진 3성 체제를 수용하여 궁성·중성[내성]·외성으로 구성되었다. 강화천도가 대몽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궁성과 외성 체제로 운영되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종 37년에 최항에 의해 중성[내성]이 축조됨으로써 비로소 3성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강도 궁성의 존재는 성문 명칭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지만, 궁궐 건설과정에서 당연히 궁성도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궁성이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내성으로 볼 수 있는 소지는 없었을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궁성을 내성이라고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문헌 기록에서 나타나는 강도의 중성과 내성은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이는 중성을 쌓았다는 기록만 있었고 고종 46년에 몽골의 요구로 파괴되는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몽항쟁의 상징적인 시설은 강도의 도성 성곽이었다. 이런 상징적인 시설에서 중성이 파괴 과정에서 빠졌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파괴된 내성이 곧 중성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외성보다 내성을 먼저 파괴한 것은 강도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강도 정부의 고육책에서 비롯되었음을 가정할 수 있었다.

강도는 섬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형상으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곳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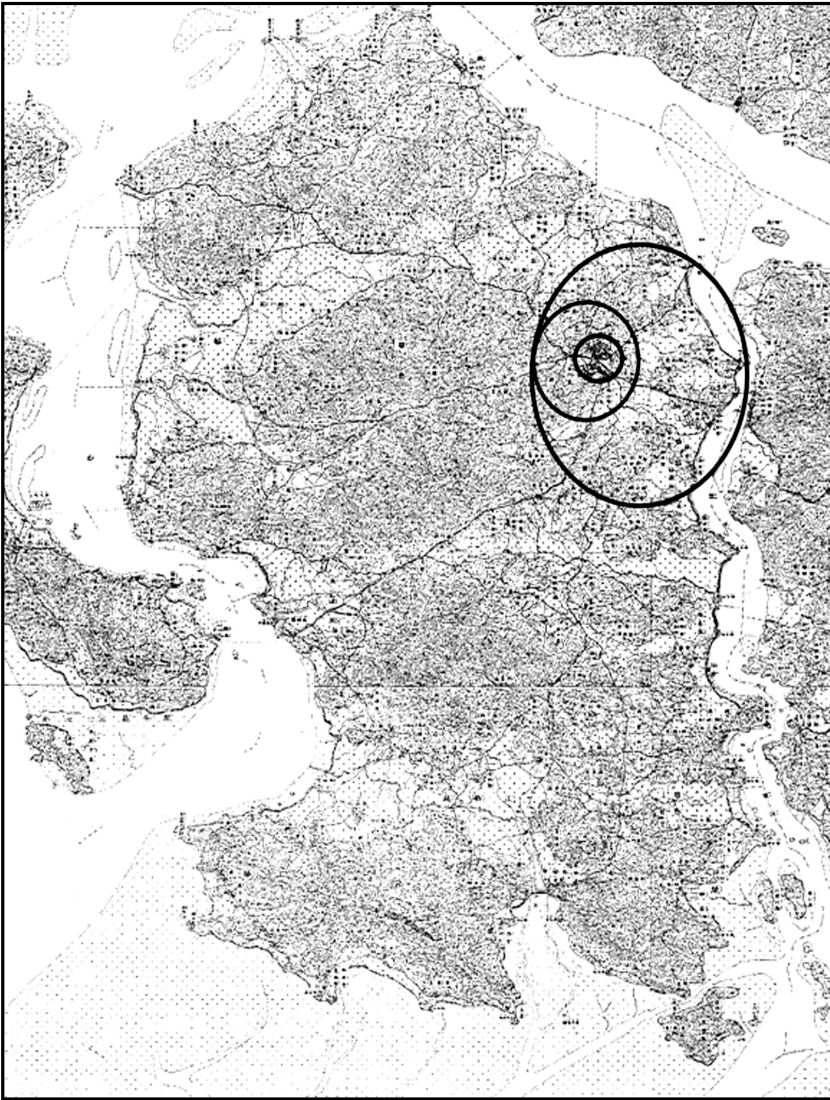
90) 부기한 <그림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 않았기 때문에 동쪽 해안 지역인 갑곶 연안에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을 외성으로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해안 방어선을 외성이라고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으며, 무엇보다 외성은 궁성과 기타 국가시설 및 일반 시가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강도 도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강도 외성은 도성을 둘러싼 환축 성곽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결국 강도의 도성 성곽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축조 목적과 상징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성곽 윤곽에 대한 발굴 성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이다.

(원고투고일 : 2010. 3. 30, 심사수정일 : 2010. 5. 3, 게재확정일 : 2010.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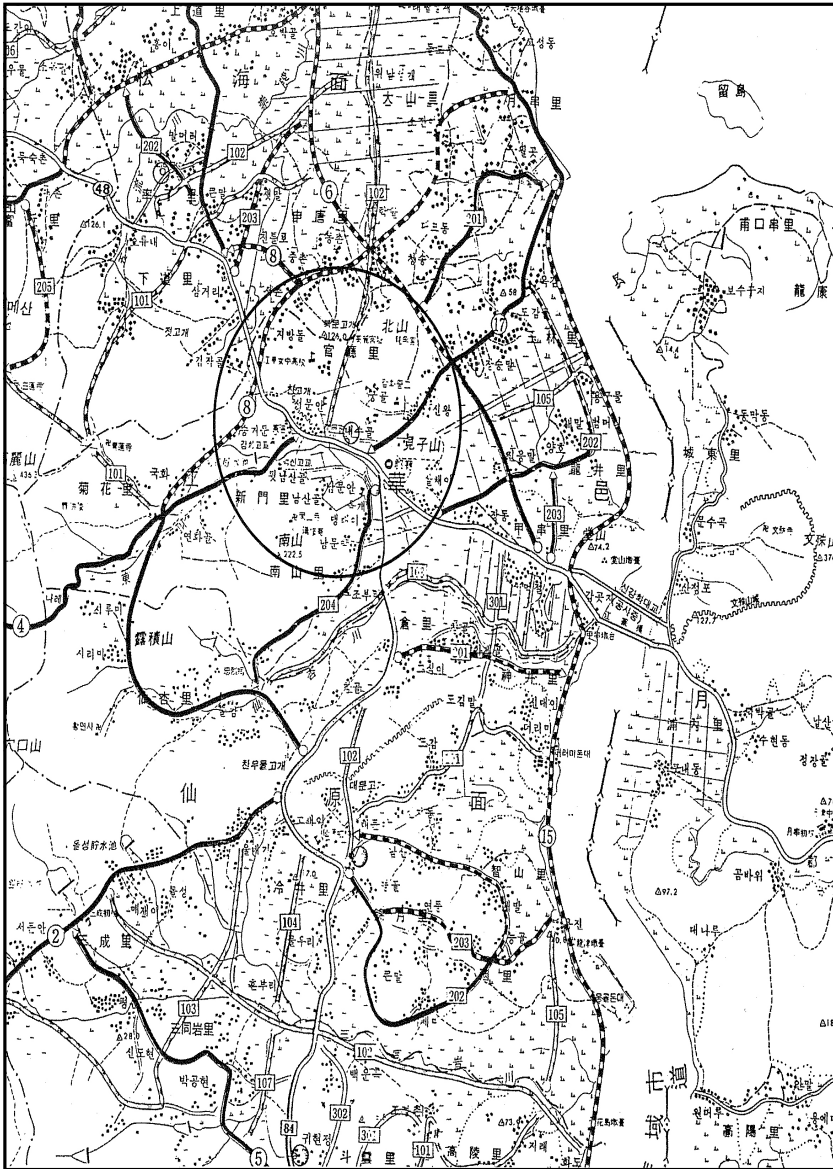
주제어 : 강도, 개경, 궁성, 내성, 중성, 외성, 황성, 나성, 성격,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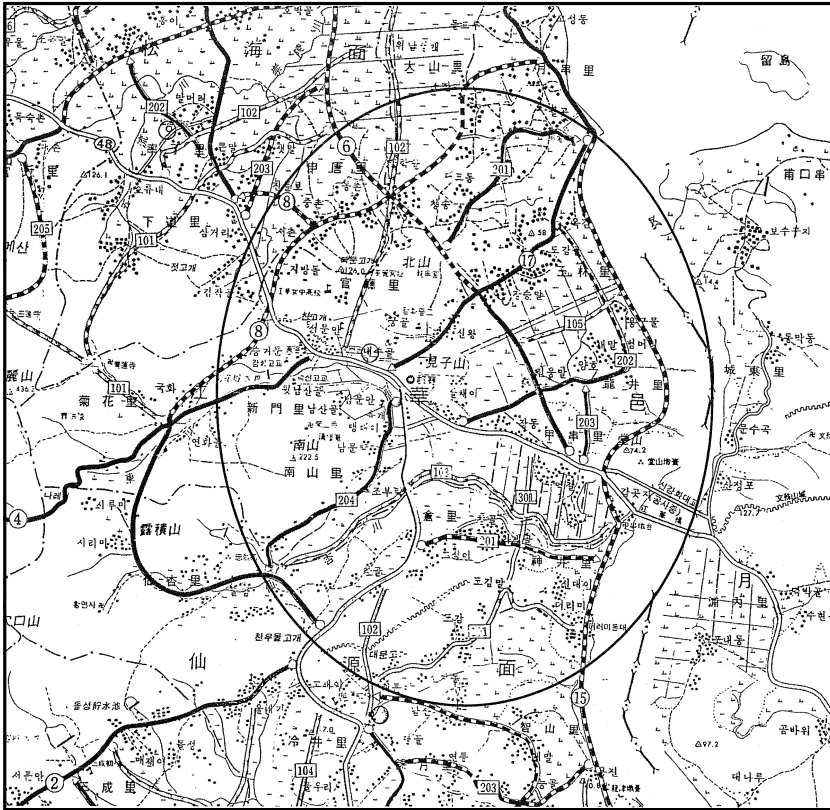
<그림 1> 江華全圖에서의 도성 성곽(朝鮮總督府, 『近世韓國地形圖  
-大正五年測圖同六年製版(江華·通津·金浦)』,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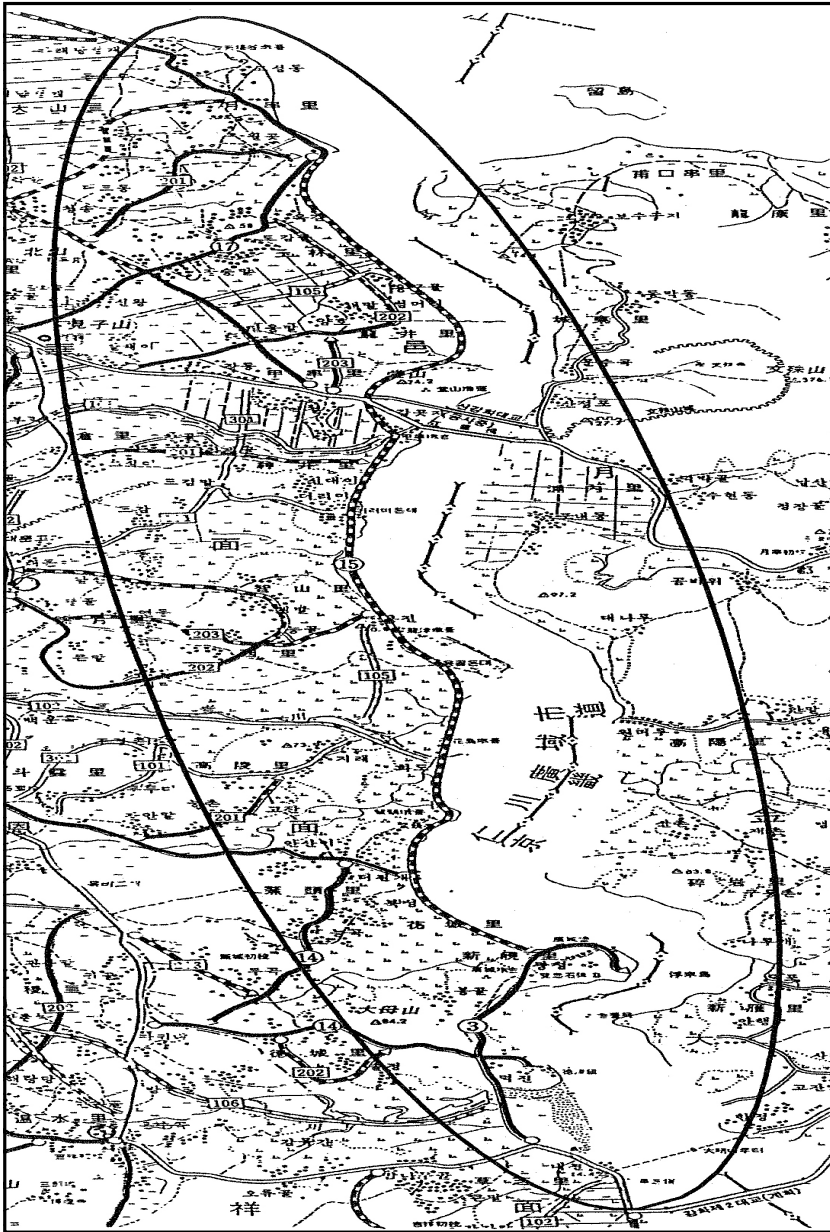
〈그림 2〉 강도의 도성 성곽(朝鮮總督府, 『近世韓國地形圖  
-大正五年測圖同六年製版(江華·通津·金浦)』, 1918)



<그림 3> 강도 내성(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72쪽)



〈그림 4〉 강도 중성(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55쪽)



〈그림 5〉 강도 외성(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24쪽)

<ABSTRACT>

##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s Castle in the *Gangdo* Period of *Goryeo* Dynasty

Shin, An-sik

Capital's Castle in the *Gangdo*(江都) was composed of Royal Palace(宮城), Middle Castle(中城: Inner Castle 內城), and Outside Castle(外城). It accepts that *Gaegyeong*(開京) was composed of Royal Palace, Hwangseong(皇城), and Naseong(羅城).

Capital's Castle in the *Gangdo* was structured Royal Palace and Outside Castle at first. Because *Goryeo* Dynasty made war against the Mongol Empire, so that was urgently transferred to Ganghwa Island. But the war was more drawn out, and was structured Middle Castle by *Choi Hang*(崔沆) at the 37th year of King *Gojong*(高宗) reign. At last, there finished three castle system.

We can know Royal Palace gate name, the others can't. But it perhaps was built Royal Palace in construction work course of Capital's Castle.

I assert that Middle Castle is equal to Inner Castle in the *Gangdo*. Because it was records about building of Middle Castle, but it was not records that the building was destroyed by Mongol Empire' exaction at the 46th year of King *Gojong* reign. Capital's Castle in the *Gangdo* was symbol building of opposition to Mongol empire. Therefore it is impossible that wasn't records about Middle Castle destruction. It prove that Inner Castle, first destruction building is exactly Middle Castle. Royal palace differ with Inner Castle.

The *Gangdo* was not only island but also unimportant spot military, so must construct a line of defense at *Gapgot*(甲串), the east coast. But the

line of defense is not Outside Castle. Outside Castle protected Royal Palace, government office, etc., also was symbol of Capital's Castle in the *Gangdo*. As a result, Outside Castle was castle walls constructed around Capital's Castle. Subject of research in the future must reflect excavation of Capital's Castle.

Key Words : *Gangdo*, *Gaegyeong*, Royal Palace, Inner Castle, Middle Castle, Outside Castle, *Hwangseong*, Naseong, Characteristics, Symbol

